"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힘 모아달라"

황인홍 무주군수, 정운천 국힘 도당위원장 만나 국비 3억원 예산심사 반영 요청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날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기재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아쉽게도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황 군수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올림픽 종목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본 가라테와 중국 우슈 등의 거센 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새정부 공약에 반영된 만큼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로 한류·문화·영토를 확장하고 국익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여·야를 초월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반드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 국가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황 군수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군은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국회 심의 확정 때까지 총력을 쏟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쌀값 폭락 군 차원 대책 마련 시급"

김남기 장수군의회 의원

장수군의회 김남기 의원이 지난 8월 31일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쌀값 폭락에 대비한 벼 재배농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기 의원은 "농자재 가격과 물가가 폭등하고 있지만 쌀 소비량 감소와 정부의 미흡한 시장격리로 쌀값이 폭락해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벼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한 군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쌀 농업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근간이라는 김 의원은 농업인 단체와 국회, 지방의회가 양곡관리법에 따른 수급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격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기 의원은 군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 자체 매입물량 1kg당 100원씩 보전해 벼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훈식 군수는 "벼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의 개정과 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기금을 통해 벼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쌀값 폭락은 전국적인 문제인만큼 중앙정부와 도에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계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원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지난 8월 31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장계면에 위치한 장계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최한주 의원은 극심한 이농현상과 소비행태의 변화로 전통시장이 위기를 맞았으며 장계시장도 예외가 아니기에 장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장계시장에 외부인을 유입시키기 위해 장계천을 활용한 야시장 운영, 전북 최초 스마트 가축시장인 장계우시장을 활용한 한우판매장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후 군에서 관광사업을 진행할 때도 장계시장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에서 상인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상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상인 주도의 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한주 의원은 "시장의 흥망성쇠는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곳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 '우수'

도내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 선정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유정)가 2022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됐다.

지난 2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50개 시·군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감률,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 및 유지율, 수익금·매출액 증가폭을 기준으로 시행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도시형(50개소), 도농형(23개소), 농촌형(27개소) 등 총 100개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전라북도 내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중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됐다.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는 시장진입형(4개), 사회서비스형(5개), 인턴·도우미형(1개) 총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자활근로사업단으로의 진입을 위해 게이트웨이 과정을 운영하여 약 70명의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그니셀프빨래방·담쟁이카페·베트남골목식당 운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정 센터장은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해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자활사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금으로 구입한 사랑의 쌀(1,000kg)을 황인홍 군수에게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지난 2일 기탁했다.

'무주반딧불시장 문화행사' 열려

무주반딧불시장이 군민들과 무주를 찾은 관람객 품으로 파고들었다. 무주군과 무주반딧불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무주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2022 무주반딧불시장 문화행사를 가졌다.

문화행사 추진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유치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자생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다.

전문 MC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행사는 가수 미지니와 김상기, 김지신, 천수애 씨가 출연해 열창으로 분위기를 돋운다. 그동안 무주반딧불시장을 애용한 군민들을 위한 각종 농·특산물 동행세일 시간도 마련했다.

가수들의 흥겨운 노래 공연과 함께 저렴하게 생필품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행사 첫날인 2일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금으로 구입한 사랑의 쌀(1,000kg)을 황인홍 군수에게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기탁했다.

지난 3일에는 아코디언 연주와 행운권 추첨으로 참석한 군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반딧불시장이 반딧불시장의 문화공감 체험 이벤트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시장 상인들의 문화 커뮤니티를 구축해 지역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군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무주반딧불시장은 무주군민, 그리고 무주군과 인접해 있는 진안군 동향면, 장수군 계북면, 충북 영동군 학산면, 충남 금산군 부리면을 아우르는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재래시장이다. 지난 1950년 개설된 이후 리모델링 등 증축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과 생필품, 순대, 국수 등을 취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소방서,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돌입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 2일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사회 전반의 들뜬 분위기 속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소방공무원 156명과 의용소방대원 460명, 소방차량 23대가 동원되어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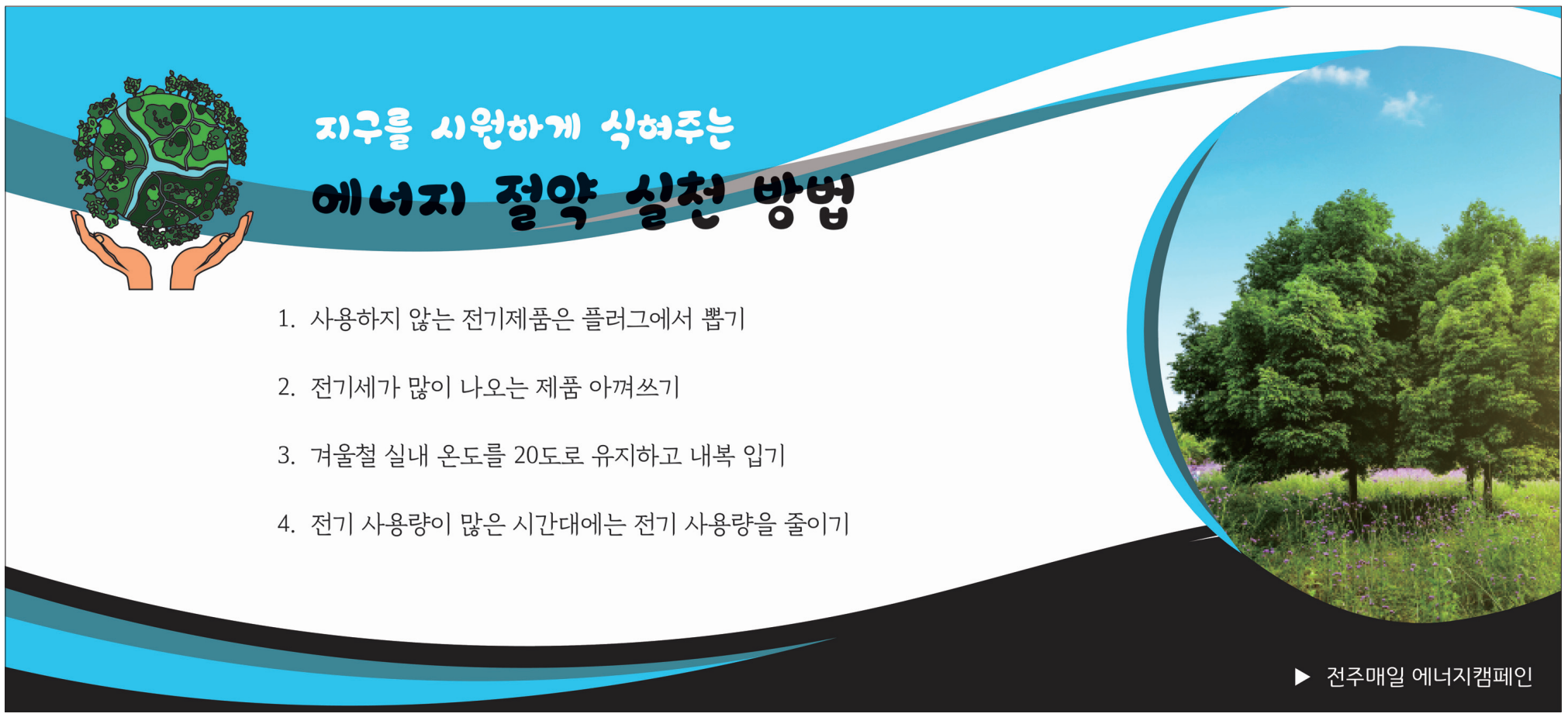
주요 추진 내용은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대응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화재 등 재난 대비 활동을 통한 소방 대응능력 강화, △소방력 전진 배치로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 등이다.

오정철 서장은 "추석 연휴기간 소방력을 총동원해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서울서 귀농·귀촌 도시민 상담 홍보 '호응'

진안군은 서울에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1일~2일까지 이틀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홍보전에 참가해 귀농·귀촌 관련 1:1 상담과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 그리고 선배 귀농·귀촌인의 정착 노하우 등 귀농·귀촌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진안군에 귀농해 정착한 5명의 귀농인 선배들이 풀어내는 다양한 주제의 귀농·귀촌 경험담은 농촌에서 삶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가득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으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